



멕시코, 고객친화 포장 선호 하역비용 및 편의고객

멕시코의 플라스틱 합성수지 시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합성수지 수입의 83%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한국산 수입비중은 3.8%로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

한국산 합성수지가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의 플라스틱 산업협회(ANIAC)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제품 포장방식에서 경쟁국보다 미흡하다고 한다.

플라스틱산업협회 회장이자 합성수지 수입업체 인 PLASTISOR, S.A. DE C.V.의 EDUARDO A. MARTINEZ 사장은 제품 선적 시 수입상의 하역비용과 편의를 고려해 “고객 친화적인 포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는 대개 25kg짜리 포대에 포장돼 운송되는데, 한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합성수지는 25kg짜리 포대에 포장돼 낱개 포대 상태 그대로 선적돼 보내진다고 한다. 수입상이 제품을 하역할 때 포대를 하나 하나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하역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즉, 수입상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경쟁국 기업들의 포장방법은 25kg짜리 포대에 포장되는 것은 동일하나, 목재 파렛트 위에 포대를 쌓아올린 뒤 50개 또는 55개 포대 단

위로 한 묶음을 만들어서 투명 플라스틱 필름으로 재포장해 선적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하역할 수 있고 수입상 창고 내에서 이동이 필요할 때에도 지게차를 이용해서 간단히 운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목재 파レット 위에 포대를 쌓아올린 뒤 50~55개 단위로 플라스틱 필름으로 재포장하는 방식은 수입상의 운반 편의와 운송비 절감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되거나 습기에 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므로 수출기업 측에도 유리하다.

남아공, 플라스틱시장 독점 중국 저가제품수입

남아공 PE 및 PP 시장은 DOW, SASOL에서 양분하여 시장 독점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각사는 서로의 사업 분야를 침범하지 않은 채 남아공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Finishing Product와 특수재 소재에 대한 생산은 하지 않고 있어 호일, Sheet와 특수강관용 강화 플라스틱 소재 등은 해외에서 다량 수입하고 있다.

SASOL, DOW는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유명하며 시장고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자사 생산 제품과 동종 제품군이 타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시장에서 선전할 경우 상당한 견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남아공의 플라스틱 산업 특성은 아직까지는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의 시장이어서 중국 등지

로부터 저가제품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LG화학 제품이 남아공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며 LG의 인지도 또한 잘 형성되어 있어 시장확대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골판지 생산설비 폐쇄 증가 라이너보드 및 골심지 가격 상승

Weyerhaeuser사는 Plymouth에 위치한 연산 35만톤의 재생골판지 설비 PM1기의 폐쇄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골판지 상자 설비의 폐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언급했다.

작년 미국 골판지 시장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5개의 설비가 단기 조업중단을 했으며 3분기에 연산1백3만톤의 생산설비가 폐쇄됐었다.

2005년에 총 1백40만톤의 골판지 생산 설비가 폐쇄되었는데 이는 북미 전체 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근 Abitibi-Consolidated와 Bowater사의 생산설비 폐쇄와 전환으로 북미 골판지 생산은 7년 전에 비해 20% 감소했으며 출하는 3,885억ft²으로 4%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수요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폐쇄로 인한 공급량의 하락에 힘입어 라이너보드와 골심지의 가격은 톤당 40달러 상승했으며 이미 1월 생산에 대한 주문이 완료됐다.

최근 3달동안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고는 1994년 이래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펄프, 제지 산업 수출 환급금 폐지 1월 유예기간 가져

중국정부는 펄프와 제지산업의 수출환급금을 지난 달부터 폐지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수입된 목재, 목재칩, 펄프를 사용하여 만든 펄프와 제지 수출품에 대해 13%의 수출환급금을 지급했는데 에너지 소비 억제와 환경오염 방지를 명목으로 수출환급금을 전면 폐지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동안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많은 무역마찰을 일으켰다.

수출환급금은 2004년 폐지됐으나 수입산 펄프로 만든 제품은 면제됐기 때문에 그 동안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중국의 아트지와 백판지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됐다.

환급금 폐지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세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 중 수출환급금을 지원받는 비중은 아트지가 98%, 백판지가 42%이며 펄프, 목재칩, 목재 수입의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통해 원가절감과 투기방지에 도움이 됐던 외국 펄프 업체들을 사재기를 통한 가격인상에 능한 중국 무역업자가 대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펄프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미 수입된 물량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파장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이다.

일본, 삼제지 "Phoenix Plan" 수립 고부가가치 생산 주력

삼제지(Mitsubishi Paper Mills)가 원가 절감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Phoenix Plan'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3월까지 생산과 인력의 감축하여 6천9백만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Filter, Rewritable과 Thermal Paper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 할 것을 밝혔다.

회사는 2백억엔을 투자, Hachinohe에 위치한 설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Hachinohe설비는 총 58만 5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췄는데 50만톤의 BSK와 3만 5천톤의 BHK, 그리고 5만톤의 탈묵펄프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비는 8월 ECF Pulp 생산설비로 변경되었다. 또한 67만 9천3백톤의 종이와 판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60만 2천3백톤의 인쇄용지와 5천9백톤의 Solid Bleached Board를 생산할 수 있다. 회사는 원가 절감과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사업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홍콩, 국제 인쇄 및 포장 전시회 개최 4월 8일부터 11일, 아시아국제전람관서

홍콩무역발전국(HKTDC), 화강국제전람(홍콩)유한공사(CIECHK)-북경국제인쇄기술전람회(China Print)및 중국국제인쇄설비 및 기자

재전람회(Print Expo)가 주최하는 홍콩 국제인쇄 및 포장전시회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국제전람관에서 열린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인쇄 및 설비기자재공업협회, 홍콩인쇄업상회, 홍콩인쇄예술학회, 홍콩와통(瓦通)제지업상회, 홍콩포장전문업협회의 주관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인쇄, 포장기계 및 기자재, 포장재료 및 부속품, 포장서비스 및 기술, 인쇄 전처리, 사진 및 디자인서비스, 인테리어 및 제지제품 가공서비스, 멀티미디어인쇄 과학 기술 및 서비스, 설비보수 및 정비서비스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홍콩의 인쇄 및 포장업은 우수한 품질, 신속한 출고 및 가격경쟁력으로 정평이 나있고, 홍콩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세계 4대 인쇄센터 중의 하나가 되어 2004년의 인쇄 및 포장업 총 생산액 4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기관인 홍콩무역발전국은 수십 년간의 전시회 계획, 개최의 전문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 가장 성공한 전시주체기구 중의 하나로 찬사를 받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시회에서 큰 규모, 아시아의 기상을 드높이고, 홍콩 기프트쇼 및 증정품 전시회는 세계에서 공신력을 인정 받았다. 또한 화강공사는 중국국제전람센터(그룹)공사(CIEC)의 전시부문전문 계열사로써, 매년 20여 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인쇄전, 석재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시회가 됐다. CIEC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직속 하에 있으며,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전시그룹회사로 알려져 있다.

세계 RFID 시장, 2010년 25배 성장 월마트 3백개기업에 RFID 태그 권고

2010년까지 RFID(전자태그) 시장이 3백30억 개 규모로 2005년에 비해 25배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인스탯(In-Stat)이 발표했다. 2005년 RFID 전체생산은 13억개 규모였다.

1991년부터 자동차 열쇠에 1억5천만개로 가장 많이 사용돼 오던 RFID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했다. 인스탯의 분석가인 앨런 노기(Allen Noguee)는 “미래에 RFID가 가장 많이 사용될 분야는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로 2010년까지 RFID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흐름은 이미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마트는 자사 상위 1백개 물품 공급업체에 RFID를 채택하도록 권고함으로써 RFID 저변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RFID 태그 부착 권고 기업을 3백개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 식품라벨 철저 규제 포장식품 등 강제성 국가표준 규정·시행

중국은 식품 생산업체에 ‘포장식품 라벨 규칙(GB7718-2004)’과 ‘특수 포장음식 라벨 규칙(GB13432-2004)’ 등 강제성 국가표준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라벨 표시와 실제 제품기능 및 성분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련 기업들의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는 라벨 표시와 제품 성분이 일치해야 하며, 사용문자 및 숫자의 최소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하고, 첨가한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 등은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료와 조미료는 성분 비율이 2%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는 큰 순서로 차례대로 표시해야 하며, 유아용, 당뇨병 환자용 등의 특수 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생산일자 와 보존기한은 수정하거나, 글자 위에 덧붙여 쓰는 행위 등은 절대 금지된다. 또한 제조 연월일을 원료 및 성분란 이외의 곳에 표시하는 경우, 동란에는 제조 연월일의 표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식품의 원료는 성분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기입해야 한다. 식품 성분을 외국어와 함께 표시 시에는 중국어 표시가 더 크게 되며, 이밖에도 첨가되는 물 역시 성분 표시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당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식품의 배합목록, 순합량, 제조자 명칭, 주소, 생산일자 및 포장일자 유효기간, 제품표준번호 등 필요요건을 정확히 써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허위 기재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지방 함유량 표기 의무화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구체적으로 명시

올해부터 미국은 식품 포장 및 용기에 전지방(trans fat) 함유량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소개되는 이 규제 때문에 미국의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은 체내 유해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불리는 전지방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시금치 샐러드, 양상추 샐러드 등 드레싱과 함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포장 농산물에 대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Kraft사의 Sensible Solution 그리고 펩시사의 Smart Spot 등과 같이 건강식품을 강조하는 로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계란, 밀, 두류, 견과류(아몬드, 호두, 피칸), 어패류(농어, 가자미, 대구, 게, 가재, 새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포장 또는 용기에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식품 포장 및 용기에 더 이상 ‘인공(artificial)’ 또는 ‘자연(natural)’ 향료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잠재적 알레르기 원인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해당 성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단, 이 규제는 미 식약청(FDA)의 규제를 받는 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아직은 미농무부에서 관리하는 육류 및 가금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농무부는 현재 알레르기 원인성분 표시를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머지않아 FDA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인 중 약 3백만가량이 밀, 보리, 호밀에 들어있는 글루텐(gluten)이라는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gluten-free’ 라벨이 붙은 식품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